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급증 ‘비상’

광주·전남 2년새 29%나 늘어...사망자도 큰폭 증가세
시력·반사신경 등 별도의 운전능력 평가기준 마련 필요

광주·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전남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운전자들이 증가한 탓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능력 평가기준을 일반 운전자와 달리 적용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지난 달 31일까지 3년7개월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모두 661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2년 1565건 ▲2013년 1847건 ▲지난해 2026건 ▲올해 1172건 등이다. 지난 2년 새 노인 운전자들이 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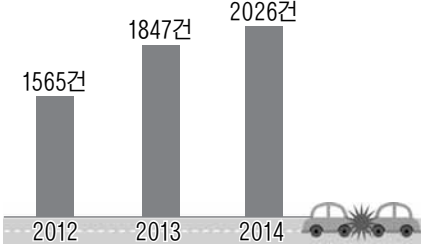
교통사고 발생률이 29.46%(461건) 증가한 셈으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6만5584건의 10.08% 수준이다.

이중 노인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69명으로, 전체 사망자 1959명의 18.84%다. 노인 교통사고 18건당 1명이 숨진 반면 일반 교통사고는 37건당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일반 운전자들보다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이 노인 운전자들이 낸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반사신경이 상대적으로 둔해 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광주·전남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께 목포시 향동 여객선터미널에서 하선하던 이모(여·82)씨의 소나타 승용차가 승객 김모(68)씨 등 2명과 앞서가던 카렌스 승합차를 잇따라 추돌한 뒤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 이씨가 숨졌다.

앞서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동운고가에서 송모(70)씨가 몰던 K7 승용차가 우측 벽면을 들이받은 뒤 마주오던 승용차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송씨가 숨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노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노인 운전자들의 경우 일년에 한 번 꼴로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야간 시력검사·근력검사·반사신경능력 등 별도의 운전능력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70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한해 일반 운전자(10년)와 달리 5년에 한 번 꼴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게 할 뿐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적성 검사를 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박정관 교수는 “고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 운전자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노인들의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거나, 일본처럼 본인 동의하에 면허증을 반납하는 등 대책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폭염 씻는 비...발걸음 가벼운 우산행렬



11일 오후 우산을 쓴 시민들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 이날 비가 오면서 낮 최고기온은 전날(32.2도)에 비해 5.8도 떨어진 26.4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누그러졌다. 비는 12일 오전까지 30~120mm 더 내린 뒤 그치겠다. /나명주기자 mjna@

들뜬 휴가철 광주 과속운전 적발 상위 5곳은

동림동 광신대교 인근 하루 23건 최다

- ② 북구 장등동 용호마을 입구
- ③ 서구 무진로 유덕IC 평등방면
- ④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앞
- ⑤ 광산구 지평동 송산대교

달한다.
장성으로 빠져나가는 길목인 이 구간

은 약 1km 가량이 직선구간이기 때문.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다.

다음으로 과속 단속이 많이 된 곳은 북구 장등동 용호마을 입구 삼거리(담양방면)이다.

모두 884건이 적발됐다. 담양 방면인 이 구간도 직선 구간인데다, 차선이 확장되면서 운전자들이 과속운전을 일삼

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구 무진로 유덕IC 평등방면이 86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지만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속도위반이 속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동구 월남동 주남마을 앞(광주방면)과 광산구 지평동 S-오일(송산대교방면)이 각각 767건·750건 등이다.

이들 과속 단속적발지역 상위 5곳은 시외로 빠져나가는 길목으로 대부분 직선구간 또는 내리막길이 많았고 제한속도도 시속 60~80km였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섬 이름 착각 해경 출동 지연 사라진다

해도에 방언이름도 추가 표기

앞으로 ‘동도이명’(同島異名·한 섬 다른 이름)의 섬일지라도 해경이 섬 이름을 착각해 출동을 지연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해경이 어민 또는 동네 주민들끼리 부르는 섬 이름도 해도(海圖·항해용 지도)에 추가, 구조·안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11일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해본부 관할 섬은 모두 2070곳으로 이중 두 개 이상 이름을 가진 섬은 모두 262곳이다.

대표적인 곳은 진도 광대도(방언 사자섬)를 포함한 여수 계도(〃 담섬)·고흥 지죽도(〃 지호도)·고흥 부아도(〃 애기섬)

등이다. 해경은 그간 해도에 광대도·계도·지죽도 등 표준어 한 개만 표기한 뒤 사용해 왔다.

해경은 구조자들이 방언으로 섬 이름을 낼 경우 위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신속 대응에 애를 먹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이날 말까지 동네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해경안전센터와 출장소 근무자 등을 통해 각 섬 지역에서 사용하는 섬 이름을 수집한 뒤 국립해양조사원과 협의해 자체 해도(대내용)를 제작·사용할 계획이다.

대내용 해도가 완성되면 해경과 구조자가 섬 이름을 놓고 서로 자신이 말하는 섬 이름이 맞다며 육신각심(?) 하는 진풍경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전남도교육청 교장·교감·교육전문직 472명 정기인사

전남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자로 교장·교감 등 교육공무원 472명(유치원 3명·초등 313명·중등 15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영단 22면>
직급별로는 교장이 159명으로 ▲승진 62명 ▲공모 24명 ▲증임 38명 ▲전보 35명 등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맞았다”

광양경찰, 고소장 접수 수사

광양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이 임원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광양 모 새마을금고 전 임원 김모(52)씨는 지난 5일 광양

교감은 승진 76명, 전보 9명으로 장학관·교육연구관 15명과 장학사·교육연구사 49명이 전직 또는 전보됐다. 신규교사도 162명이 새롭게 배치됐다.

유치원 교원 인사는 유치원장에 대한 정부 발령이 이뤄진 이후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시 중동 새마을금고 본점 3층 사무실에서 이사장 백모(57)씨로부터 머리와 턱 등을 맞았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백씨에게) 사직서를 내면서 7년 동안 보직을 강등하는 등 불합당한 이유를 물으면서 말다툼이 벌어지던 중 백씨가 갑자기 머리를 들이받고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육군 대위 술김에...종업원 금품 슬쩍했다 때늦은 후회



〇...지인과 술을 마신 뒤 술집 종업원의 휴대전화 등 금품을 몰래 가지고 달아난 육군 위관급 장교가 경찰에 걸렸다.

〇...1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남 모 지역에 근무 중인 A(27)대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40분께 서구 치평동 S소주방에서 종업원이 소파에 잠시 놓아둔 스마트폰과

그 안에 있던 현금 6000원을 훔친 혐의.

〇...경찰은 A대위 일행이 술값을 계산하면서 사용한 신용카드를 확인해 그를 검거한 뒤 관할 헌병대에 인계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A대위는 “소파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서 술김에 들고 나와버렸다. 훔친 물건은 그대로 있으니 돌려주겠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100평 / 즉시입주가능〉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용가도로 이면코너

- 평수 **100평** (5층전체사용)
- 현 학원 운영중
- 시설 **완비**
- **에어컨 2대 내부깔끔**
(시비약간있음)

보 **2천만** 월 **130만**

급매 / 부동산 종합 학원 매매

경매학원 매매
즉시운영가능
월수익 3,0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임자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15억

② 수완동 수완지구 4층중 3층 86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7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⑦ 광양 상아101파티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직접 운영시 1800만

매매가 15억
(보 2억, 융 6억)

건물 올 리모델링
임대 완료 만실!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인테리어 중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010-7384-7800 / 010-6670-9800